

여름성경학교 '영광' 주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 '2016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 어린이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상칠언(4)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때에 그 마음을 이해함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절로 절로 난다 어깨춤이 난다~"

영혼이 잘되어 가니 일터에 축복이 임했다는 임재영 집사와 어린 딸의 질병을 치료받은 콜롬비아 비르히니아 디아스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750호 2016년 8월 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 영광 위해 자라는 만민의 꿈나무 될래요” 어린이들의 천국잔치 ‘2016 여름성경학교’



아동주일학교 '2016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7월 24일(주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27일(수)까지 4일간 열렸다. GCN방송을 통해 국내외에 생방송되는 가운데 대전, 춘천, 천안, 경주, 구미, 포항, 광주, 동광주, 무안, 진주문, 전주만민교회 등 전국 지교회에서도 함께했다.

첫날 개강예배 시 강사 이수진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이'(요 15:8)라는 제목으로 "거인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처럼 믿음이 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와 찬양, 기도를 올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 오전, '달고 오묘한 말씀' 시간에 강사 신동초 목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지므로(딤후 4:5), 이를 위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며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사진 1, 3).

셋째 날 오전, '제9회 만민아동예술제'에서는 대상에 성극 '목자사랑'팀(사진 9), 금상은 리본체조 '레인보우'팀, 은상은 워십 '주얼리'팀, 동상은 여성듀엣 '천상의 바람'팀이 수상했다. 대상 팀을 지도한 김태영 권사는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맡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행복해했어요. 태중에서 유산될 뻔했거나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는데, 엄마가 당회장님께 기도받고 건강하게 태어난 간증의 주인공들도 있어 더욱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날 오후, 한주경 찬양선교사의 인도로 '파워지저스'가 진행되었다. 만민 찬양을 부르며 성령 안에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2).

넷째 날 오전에는 '영의 세계로'(요 4:24)라는 제목으로 강사 김수정 목사가 말씀을 전해 천국 소망을 더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생후 8개월 때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으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흉터 없이 3주 만에 신속히 치료된 동광주만민교회 이재우 아들은 "말씀을 통해 천국이 있음을 알려 주시기 위해 천사를 비롯해 다양한 오로라 빛 형상과 구름의 형상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니 감사했어요."라고 했다.

아동주일학교 교장 김현진 전도사(사진 6)는 "하늘에 무지개와 다양한 형상들의 구름, 신선한 바람, 더위를 식혀주었던 단비까지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도를 잘하지 못하던 아이

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으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고, 평소 어둡던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신나게 뛰며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등 아이들이 확연히 변화되는 모습에 무척 기뻐했습니다."라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특히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영광'을 주제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공과를 비롯하여 무안단물수족관과 홍보관 방문, 하늘보기, 해외 연합대성회를 되돌아보는 시간 등이 있었다(사진 4, 7, 10).

또한 성경 퀴즈, 도전 새 예루살렘, 요한 계시록 강의, 성령 충만 기도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둘째 날과 셋째 날 오후에 학년별 활동이 병행되었다(사진 5, 8).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님의 가상칠언(4)

림 되는 현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밤은 춥습니다. 그럼에도 심히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셨기에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신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이유

1) 영혼은 불멸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육은 죽으면 영혼을 담은 껍질에 불과하므로 흠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불멸한 것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흠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아담의 영이 생겼습니다(창 2:7).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영 안에 영의 지식들, 곧 진리로 채우셨습니다.

혼은 두뇌의 기억 장치와 그 안에 담긴 내용들, 그리고 기억한 것을 떠올려 생각하고 느끼며 활용하는 모든 작용을 통틀어 말합니다. 원래 아담은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움직였습니다. 영이 진리로 채워졌으니 혼과 육도 진리에 속해 있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영이 활동할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하지요.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어 활동이 정지되자 대신 혼이 주인 역할을 하여 육을 주관했습니다. 혼은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아 비진리의 지식들을 받아들였지요. 이렇게 마음에 비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원래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진리는 빠져 나가고 미움, 혐기 등의 비진리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 활동이 멈췄다고 해서 사람의 영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영원불멸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드신 것이기에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이 죽으면 혼은 어떻게 될까요? 뇌가 있어야 뇌세포를 통해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육이 죽어 두뇌의 기

역장치가 사라지면 영이 없는 짐승은 육과 함께 혼도 소멸되어 완전히 무로 돌아갑니다. 반면 영이 있는 사람은 혼의 작용이 마음으로 전달되어 마음에 입력됨으로 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입력된 혼의 상태, 다시 말해 영혼이 결합된 형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나고 진리를 공급받아 비진리를 버리고 온전히 진리로 채워지면 ‘영혼이 잘되었다’고 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요삼 2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곧 영이 살아난 사람은 수명을 다하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영이 살아나지 못해서 마음을 진리로 일구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갇히게 됩니다.

2) 오직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이루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를 올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이루셨음을 증거합니다.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닌 오직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요 4:34).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9~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머리칼라도 세신다 하셨으니 정녕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면 질병의 문제는 물론 직장이나 사업터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시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상칠언을 명심하여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큰 소리로 외치신 이유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와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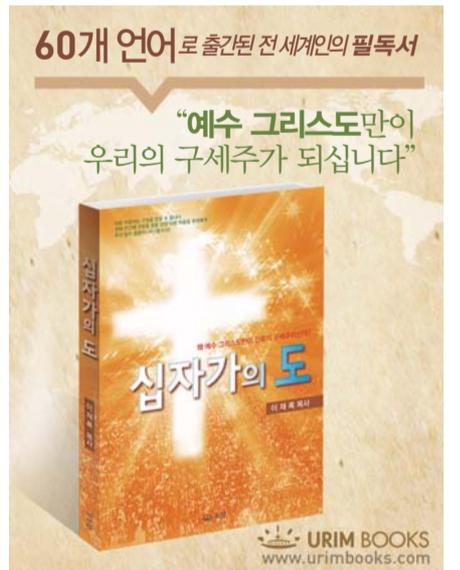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 주시고자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가상칠언(架上一言)의 말씀이지요. 마지막 말씀인 제 7언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1. 예수님께서 운명을 앞두고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신 이유

이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제 7언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말씀 외에도 신구약 성경 곳곳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민 12:13 ; 대하 32:20 ; 시 57:2 ; 막 10:47 ; 요 11:43 ; 행 4:24, 7:59).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기 전, 겹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심히 애를 쓸 때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나옴으로 땀이 핏방울처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일곱 단계로 나누어 본 '하나님 사랑의 깊이'

하나님 마음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는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때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진실로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의 차원을 일곱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자신의 영적인 사랑의 깊이를 점검하며 사랑의 결여와 부족을 채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용서'의 단계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대의 용서, 완전한 용서를 말하며(마 18:21~22), 용서한 후에는 기억하지도 않는 것이다(시 103:12~14 ; 사 43:25). 따라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가 첫 단계인 '용서'는 기본적으로 용서할 자를 능히 용서할 뿐 아니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는 차원이다(왕상 21장 ; 대하 33장).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인들도 용서하셨고, 이후 죄 가운데 행할 인류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셨다(눅 23:34). 또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한대의 용서, 완전히 용서하는 사랑을 이뤄야 할 것이다.

둘째> '살리는' 단계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뜻으로 '다시 살 수 있는 바탕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살인죄에 대한 보응은 받지만, 참된 회개를 이루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니 용서뿐 아니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마침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했다. 이처럼 허물을 용서할 뿐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랑의 단계이다.

셋째> '참음'의 단계

진리 안에서의 '참음'은 회개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다시 살아난 영혼의 연약함을 알아 신속히 변화되지 못함을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과 사랑으로 참아 주되 애매히 나를 비방하거나 판단, 정죄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들도, 진실한 사랑을 주었는데도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거나 더 나아가 있을 수 없는 악으로 나오는 이들도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참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가까이 참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이다(딤후 2:10).

넷째> '밀어 주는' 단계

어떠한 영혼에 대해 참아줄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 상대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영혼으로 믿는다면, 혹여 상대가 범죄하고 속이며 불순종한다 해도 그를 포기할 수 없다. 밍거나 싫은 마음 자체도 들지 않는다. 결국은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혹여 낙심이라도

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주게 된다.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상대를 믿어주는 사랑의 차원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믿음대로 보장해 주신다.

다섯째> '바라봐 주는' 단계

만일 상대의 단점이 99개이고 장점이 1개라면 그 1개의 장점을 바라봐 주는 사랑의 차원을 의미한다. 그 장점을 잘 살리면 자연히 단점은 점차 버려지리라 믿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집이 센 사람이 변화되면 중심이 곧은 사람이 되고, 세상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은 죄 사함받은 은혜가 더 크니 더 충성할 것이라고 믿는다. 더딘 변화에도 달란트로 힘이 되니 고맙다고 여길 뿐 아니라 설령 범죄해 하나님께 징계받은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며, 이 연단을 잘 통과해 온전케 될 날을 기대하는 것이다.

상대가 예전에 잘한 일들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서라도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간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어떤 영혼이든지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사랑의 단계이다.

여섯째> '기다리는' 단계

혹여 믿고 바라봐 준 상대가 변화의 열매로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해도 조급해하지 않으며 기다리는 사랑의 차원이다.

인간 경작의 무수한 세월 동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셨으며, 참고 믿고 바라봐 주셨다(벧후 3:8-9). 그럼에도 열매가 적다 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영혼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고 말씀을 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전 3:6-7). 설령 상대로 인해 욕을 먹거나 해를 입어도 한결같은 소망으로 기다리고, 휘방하거나 비방을 한다 해도 부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내게 주어지는 모든 타격도 고스란히 받으면서 견뎌내는 사랑이다.

일곱째> '눈물을 흘리는' 단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경작하시면서 오랜 기다림의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픔을 느끼시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지만, 인생들에 대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기대하며 반드시 이루어라는 의지를 굳히셨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친히 인생들의 악을 대면하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 종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밤이면 습관을 좇아 제자들과 영혼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쌓곤 하셨다. 이처럼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한 방울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가(시 56:8)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시 세상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던 녹막염을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가 치료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주님을 영접하였지요. 이후 1998년, 큰형님의 전도로 저는 공주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의 특성상 지방에 가는 일이 많고 몸이 너무 고되다 보니 기도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줄어 주식에 손을 대면서 마음에 세상 욕심이 자리하니 예배시간에 즐기 일주였지만, 저는 몸으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의 주식투자로 인해 많은 부채가 생긴 데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했던 아내 김종선 집사는 방광염을 가끔 앓곤 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불편해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며 미움을 벗어버리기 위해 기도하였고, 그 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치료되었습니다. 큰 아들 승묵이는 고열로 경기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당회장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주일성수와 심일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불경기와 상관없이 일거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식투자로 큰 빚을 지고 있었지요. 수익을 내면 남을 돕는 선한 일에 쓰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말입니다. 수



임재영 집사 (47세, 구미만민교회)

익을 크게 낼 때는 하늘을 날 듯 기뻐지만 손실을 볼 때는 지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만류하는 아내를 속이고 몰래 주식투자를 계속하다 들켜 이혼하자는 말까지 들었지요.

2013년 초,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던 주식을 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자의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니 '내 욕심으로 인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였는데 너무 마음이 홀가분했고 빚도 차츰 정리해 가자 비로소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당회장님과의 설 만남 시 저희 부부는 믿음으로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 뒤 겨울임에도 작은 현장들이 4~5개로 늘어나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고, 구미에도 아파트 신생 현장이 생겨 구미만민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학생들을 산상기도처에 초청해 주심으로 5월 초 학생주일학교 부장으로 서 함께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 신앙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변화될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며 소자 하나라도 섬기시고 어찌하든 천국 소망을 심어 주시고자 애쓰시는 목자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흘렀지요. 이후 각종 예배와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통회자복의 은혜를 주시며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6월에는 천안에 새로운 현장이 7~8개로 늘어나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제가 기도하는 가장이 되어 일터에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깨닫게 해 주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골반 형성 이상이 기도받은 후, 정상이 되었어요”

비르히니아 디아스 성도 (36세, 콜롬비아만민교회)

어느 날, 막내딸 사라가 걸음마를 떼는데 이상하게 절뚝거렸습니다. 저는 어린 딸이 염려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 사라의 골반 형성 이상이었고, 오른쪽 31도, 왼쪽 33도로 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교정기를 사용해야 하며, 그래도 치료되지 않으면 수술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딸의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했고, 엄마로서 어떠한 것도 해 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 부부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지교회인 콜롬비아만민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엔라씨

TV(중남미 최대 기독교방송)를 통해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2월 7일, 저는 콜롬비아만민교회 양 떼가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딸에게 제 손을 얹고 GCN방송을 통해 설교 후 해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지요. 또한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 장정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지난 3월, 저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사라의 골반이 양쪽 모두 23도로 정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잘 걷고 뛰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딸을 보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기도받기 전



양측 골반 형성 부전으로 대퇴경과 골두 각이 정상에서 벗어나 우측 31도, 좌측 33도로 과도한 전경으로 인한 걸음걸이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임.



양측 골반 형성 이상 소견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920-4512, 010-3343-153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3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6-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천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충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딩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